



[산업]
LG전자
이노베이션 카운실 발족
포스트 코로나 논의
08

14일 Market Index			
↓ 코스피	2183.61	↓ 코스닥	778.39
	(-2.45)		(-2.80)
↓ 금리 (연고채 3년)	0.854	↑ 환율 (원/달러)	1205.70
	(-0.006)		(+4.80)

‘부실징후’... 금감원이 ‘제2 옵티머스’로 꼽은 곳은

알펜루트·플랫폼·디스커·A1 ‘전격검사’

알펜루트·디스커버리·플랫폼
실제 환매 중단사태로 이어져

부실징후 포착에도 막지 못해
징벌적과징금 등 사후제재 필요

부실징후가 포착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서면검사 또는 현장검사를 받은 자산운용사 5곳은 옵티머스자산운용과 플랫폼파트너스·알펜루트·디스커·버리·에이원자산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옵티머스를 비롯해 알펜루트, 디스커버리, 플랫폼파트너스까지 4곳에선 실제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에 대한 현장검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다. 이상 정황을 감지해 금융당국이 현장검사를 실시했지만 이미 늦장대응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상 징후 사전 포착...4곳서 환매 중단

금융권에 따르면 옵티머스를 포함한 자산운용사 5곳은 수상한 정황이

〈금감원에 부실징후 포착된 사모운용사 5곳〉

	옵티머스	플랫폼파트너스	알펜루트	디스커버리	에이원
설립연도	2009.04.23	2015.12.02	2013.07.30	2016.11.14	2015.03.03
대표이사	김재현	정재훈	최보근	장하원	선형렬
주요상품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25·26호	더플랫폼 아시아무역금융 1Y	알펜루트 에이트리	디스커버리 US핀테크 글로벌	

포착돼 금융당국의 서면검사 및 현장검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52개 자산운용사와 1786개의 펀드에 대해 실태점검을 마친 후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사모사채 편입 비중, 자산과 만기의 불일치, 개인투자자 비중 등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된 10곳을 먼저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했고 이후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5곳을 추렸다. 실태조사부터 집중 모니터링, 서면검사까지 3단계에 걸쳐 들여다본 셈이다.

의심 정황은 실제 환매중단으로 이어졌다. 5곳 중 4곳의 자산운용사 사모펀드에서 환매가 중단됐다. 알펜루트 자산운용 펀드(8800억원),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5500억원), 디스커버리US핀테크 글로벌 펀드(1600억원), 디스커버리US부동산 선순위 펀드(1100억원) 등이다. 여기에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인

‘더플랫폼 아시아무역금융 1Y’ 2호, 3호, 4호의 환매도 잇따라 중단됐다. 환매 중단 금액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5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부실 징후를 사전에 파악했음에도 환매중단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늦은 대응이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금감원이 적극적인 현장검사에 나섰을때 이미 부실 사태가 심각해 환매중단을 막을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부터 사모펀드 실태조사를 했지만 뒤늦게 현장점검에 나섰다”며 꼬집기도 했다.

(2면에 계속)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文 대통령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 “선도국가로 도약 대한민국 대전환”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두고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대국민 보고대회’를 주재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에 대해 이같이 정의한 뒤 정부가 선정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사업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스쿨 ▲디지털 트윈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에 대해 소개했다.

(3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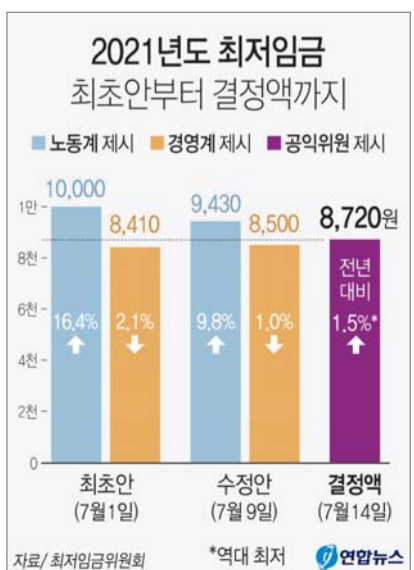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한국판 뉴딜’ 보고하는 정희선 수석부회장

정희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 동영상으로 참여, 발표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뉴스1

내년 최저임금 1.5% ↑ 8720원... 노사 모두 “불만”



130원 오른 ‘역대 최저’ 인상률
양대노총 위원을 불참·중도퇴장

내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8590원)보다 130원(1.5%) 올라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로 해석되지만, 노동자측은 물론 사용자측도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어 향후 잡음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사회적 대화기

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2시 10분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 회의는 전날(13일) 오후 3시 제8차 회의로 시작해 회차를 넘겨 노사가 참여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사용자측 최저임금 삭감안에 반발해 이날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다. 양측 대립 속에 결론이 나오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심의 폭진 구간으로 8620원~9110원(0.3~6.1%) 제시했고, 이에 반발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이 퇴장했다. 이후 표결에서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만 참석한 가운데 찬성 9표, 반대 7표로 최종 채택됐다.

결국 양대 노총 근로자위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수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셈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5%)은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첫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2.7%)의 절반 수준이다.

/한용수 기자 hys@

당뇨 근본원인 개선 새 생물자원 찾았다

퓨젠바이오, 항당뇨신물질 상용화 완료

국내 바이오기업이 버섯 균사체에서 당뇨의 근본 원인을 개선하는 새로운 생물자원을 발견했다.

퓨젠바이오는 14일 항당뇨신물질 ‘세리포리아 락세라타’의 상용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 물질에 대한 세계 첫 원천 특허를 확보하고, 당뇨는 물론 치매 치료제로 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수 퓨젠바이오 대표(사진)는 이날 서울서초구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리포리아 락세라타에 대한 10년간의 연구 성과를 공개했다.

퓨젠바이오는 지난 2010년 버섯 균사체 연구 중 연구원 실수로 우연히 혼입된 하얀색 균주에서 항당뇨 효능을 발견했다.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농림축산식품부의 고부가가치기술개발 국책과제를 시작으로 10년간의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 당뇨의 근본 원인을 개선하는 새로운 생물자원으로 재탄생시켰다.

(L2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

